

충남지역 시설퇴소아동의 자립지원 방안

이 재 완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jaewan@kongju.ac.kr

이 연구는 충청남도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의 자립지원 실태와 삶을 분석하여 퇴소아동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임

CONTENTS

1. 아동복지시설 및 입·퇴소 현황
2.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 실태
3. 충남 시설퇴소아동의 자립지원 사례 분석
4.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 정책제안

요약

- ◀ 충청남도 아동복지시설은 2015년 현재 전체 36개소로 아동양육시설 15개소, 자립생활관 1개소, 아동공동생활가정 20개소임.
- 시·군 중 천안이 12개소로 가장 많은 아동복지시설을 가지고 있으며, 공주시, 계룡시, 서천군, 청양군은 아동복지시설이 없음
- ◀ 충청남도 아동복지시설 입·퇴소현황(2015년)을 보면 입소아동 184명, 퇴소아동 166명임.
- 입소이유 중 학대가 101명으로 가장 많고 빈곤실직 29명, 유기 18명, 가정해체 16명 등임. 퇴소는 원가정복귀 65명, 취업자립 62명, 타시설로 전원 33명으로 나타남
- ◀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은 크게 아동생활안정지원, 지역아동센터지원, 아동학습환경지원, 아동정서함양지원으로 구분됨
- ◀ 현재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은 퇴소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LH 전세 주택 지원 제도, 그리고 아동발달지원계좌를 통한 경제적 지원 등 3가지임
- ◀ 아동복지시설퇴소아동의 자립지원방안은 사회적 지원 활성화, 경제적 지원 활성화, 그리고 자립프로그램 활성화로 유형화하여 시행할 수 있음
- ◀ 아동발달단계에 맞는 진로지도와 퇴소 후 사례관리 및 자조집단 형성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지원을 위한 충청남도 차원의 퇴소아동자립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함

01

아동복지시설 및 입·퇴소 현황

1. 아동복지시설 현황

-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시설은 2016년도 기준으로 10,967개소임.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 260개소, 공동생활가정 510개소, 그리고 가정 위탁 가정 수 10,197가정, 자립지원시설 12개소임.
 -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수는 아동양육시설 5,605명, 공동생활가정 1,514명 그리고 자립지원시설 230명으로 전체 7,119명임.

〈표 1〉 아동복지시설 현황

구분	합계			아동양육시설2)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자립지원시설	
	시설수	아동수	종사자 수1)	개소수	아동수	종사자 수	개소수	아동수	종사자 수	위탁 가정수	아동수	개소수	인원
2014년	11,818	30,656	6,166	265	13,683	5,156	476	2,588	1,010	11,077	14,385	12	252
2015년	11,449	29,366	6,687	263	13,002	5,507	480	2,636	1,180	10,706	13,728	12	243
2016년	10,967	28,234	7,119	260	12,580	5,605	510	2,758	1,514	10,197	12,896	12	230

- 충청남도 아동복지시설은 2015년 현재 전체 36개소로 아동양육시설 15개소, 자립생활관 1개소, 아동공동생활가정 20개소임.
 - 시·군 중 천안이 12개소로 아동복지시설이 가장 많고 공주시, 계룡시, 서천군, 청양군은 아동복지 시설이 없음.

2. 아동복지시설 입·퇴소 현황

- 충청남도 아동복지시설 입·퇴소현황(2015년)을 보면 입소아동 184명이며 퇴소아동은 166명임.

– 입소이유는 학대 101명으로 가장 많고 빈곤실직 29명, 유기 18명, 가정해체 16명 순서임. 퇴소는 원가정복귀 65명, 취업자립 62명, 타시설로 전원 33명으로 나타남.

〈표 2〉 시도별 입·퇴소 현황(2015. 12. 31 기준)

구분	입소									퇴소							
	계	유 기	미혼 모(부) (혼외자 포함)	미 아	비행 가출 부랑아	빈곤 실직	가정 해체	학대	전 입	계	원가정 복귀 (연고자 인도등)	취업 자립	가정 위탁	입 양	전 원		사망 탈원
															아동 시설	기타 시설	
계	5,749	472	959	9	735	432	438	2,340	364	5,988	2,270	1,252	565	215	1,384	259	43
충남	184	18	3	—	1	29	16	101	16	166	65	62	5	—	27	6	1
서울	1,901	356	715	8	284	107	31	316	84	1,929	493	211	535	164	450	56	20
부산	187	11	4	—	1	16	14	117	24	277	68	134	—	3	47	21	4
대구	259	6	21	—	33	22	17	142	18	262	123	98	—	3	29	9	—
인천	252	1	5	—	—	15	48	176	7	238	102	52	5	—	66	13	—
광주	237	2	39	—	1	55	18	91	31	223	71	47	4	3	73	24	1
대전	277	3	4	—	196	11	6	53	4	275	219	33	1	—	13	8	1
울산	81	—	1	—	—	6	9	64	1	83	57	12	—	—	9	5	—
세종	8	—	—	—	—	5	1	—	2	13	8	2	—	—	3	—	—
경기	903	55	35	—	64	46	140	507	56	973	375	187	6	21	350	32	2
강원	209	1	19	—	2	26	21	123	17	210	88	26	7	3	74	12	—
충북	173	3	20	—	62	17	21	40	10	213	87	60	—	16	28	15	7
전북	436	6	16	1	83	12	19	281	18	422	216	68	—	—	115	19	4
전남	289	2	54	—	6	40	31	116	40	302	134	89	1	2	58	18	—
경북	136	—	4	—	—	3	22	91	16	173	68	81	—	—	20	4	—
경남	151	6	8	—	2	20	17	84	14	164	62	76	1	—	12	10	3
제주	66	2	11	—	—	2	7	38	6	65	34	14	—	—	10	7	—

출처 :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2017년 현재, 충청남도의 퇴소아동 취업형태는 정규직 18명, 비정규직 5명이며 취업분야는 서비스직 7명, 기능직 5명, 단순노무직, 전문직 각 3명, 판매직 2명, 농어업 1명, 기타 3명임.

02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 실태

-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의 자립지원과 관련한 주요정책 및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에서 아동복지시설 관련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전국단위 및 시도단위에 설치된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크게 아동생활안정지원, 지역아동센터지원, 아동학습환경지원, 아동정서함양지원으로 구분됨.
- 아동자립지원관련 사항은 아동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사회적응훈련비 지원, 간식비 지원, 자립지원 프로그램 지원, 퇴소예정아동 운전면허취득비 지원 등이 있음.
-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은 3가지로 퇴소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LH전세 주택지원 제도, 그리고 아동발달지원계좌를 통한 경제적 지원임.

〈표 3〉 충남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 관련 사업

구분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	지원기준 및 방법
퇴소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양육시설, 그룹홈 퇴소 및 가정위탁 종결아동	145명 (도비 30%/시군비 70%)	퇴소, 종결아동의 생활품 구입 및 주거마련 등 자 립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	1인당 5백만원(1회) - 만18세 이상 연령도래 로 퇴소하는 아동에게 아동개인계좌에 입금
사회적응훈련비 지원	생활시설 아동(미취학 아동 제외)	601명 (도비 30%/시군비 70%)	아동의 경제관념 제고를 위해 용돈개념으로 사회 적응훈련비 지원	1인당 월 지원 단가 : 초등 학생 1만원, 중학생 2만원, 고등학생 3만원, 대학생 5만원
간식비 지원	생활시설아동	763명 (도비30%/시군비 70%)	간식비 지원	1인당 일 2천원
자립지원프로그램 지원	만15~17세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345명 (도비30%/시군비 70%)	자격증 취득 및 취업박람회 참가 등 자립을 위한 프로 그램 실시	1인당 연간 15만원 이내
퇴소예정아동 운전면허취득비 지원	생활시설아동 중 운전 면허취득 가능 연령자	62명 (도비 30%/시군비 70%)	운전면허 취득시 필요한 비용지원	1인당 연간 100만원 이내
참고서 구입비 지원	생활시설 중 초·중고 재학생	526명 (도비 30%/시군비 70%)	참고서 구입비 지원	1인당 연간 10만원 이내
학원수강비 지원	생활시설 중 초·중고 재학생	535명 (도비 30%/시군비 70%)	아동 특성에 맞는 학원수 강을 위한 비용지원	1인당 연간 70만원이내
시설아동 독서활동비 지원	생활시설	38개소(83명) (도비 30%/시군비 70%)	시설 내 독서활동을 위한 비용지원	1개소당 연간 60만원 이내
아동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1개소, 60,000천원 (도비 100%)	자립지원프로그램 운영, 취업정보제공 등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전담기 관 운영비 지원	인건비(자립요원) 12명과 운영비지원
아동자립증진지원	생활시설, 가정위탁 아동	1개소, 200,000천원 (도비 100%)	자립지원 DB구축운영, 금융 역량강화교육, 자립역량강화 사업, 자립체험관 운영, 심 리·정서지원사업, 꿈나무 축구 대회참가 훈련지원 등	도 직접 집행
정서함양프로그램 지원	생활시설 아동 및 지 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7,350명 (도비 30%/시군비 70%)	문화생활, 수련활동 등을 위한 비용지원	1인당 연간 10만원 이내
아동발달지원계좌	만18세미만의 아동복지 시설, 가정위탁, 소년 소녀가정 아동 등과중위 소득 40% 소득수준아동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	아동의 자립지원 (경제적 지원)	아동이 적립시 국가(지자 체)가 월 4만원 내 1:1매 칭 지원

자료 : 충남아동복지협회 내부자료(2018) 재구성

03

충남 시설퇴소아동의 자립지원 사례 분석

- 본 연구는 문헌조사와 함께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함. 질적 연구 대상자는 아동복지시설 서비스 제공자 4명, 시설입소아동 5명, 시설퇴소아동 5명으로 2018년 2월에 인터뷰를 실시함

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터뷰 결과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서비스 제공자)의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관련 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4〉 시설종사자(서비스 제공자) 인터뷰 분석 결과

단계	범주	분석 결과
입소 시	입소 사유 및 아동의 실태	학대에 의한 방임으로 시설 입소
		가정의 문제로 인한 입소
		베이비 박스의 영향-미혼부모 아동의 입소
		아동 보호의 현실적 문제 대두 - 호적, 시설 평가, 장애아 구분
	입소 아동의 특성	무기력과 무계획적인 생활
		낮은 기초 학력
		지역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기
	아동의 시설 생활 적응	장애 있는 아동의 험난한 시설 생활
		부모 없는(연락이 안 되는) 아이의 일탈 행동
		목표 없는 시설 생활
퇴소 전	퇴소 전 자립 지원 프로그램과 효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자립지원금
		단계적 지원의 필요성
	자립생활 지원과 지역 사회 연계	지역사회에 미안한 시설의 입장
		외부 프로그램에 수동적인 아동들

단계	범주	분석 결과
		자립에는 도움이 안 되는 기업의 활동
		시설 아동 채용이 어려운 기업의 입장
		시골에 있는 시설의 고립성으로 지역사회와 거리감
	퇴소 전 아동들의 욕구 혹은 자격증	하고 싶은 아르바이트
		갖고 싶은 자격증
		이제는 대학으로
	자립지원프로그램과 자립생활관에 대하여	시설에서의 부단한 노력과 일정한 효과
		도의 지원 그러나 임상심리사의 부족
		협회 차원의 지원과 아이들의 낮은 호응
퇴소 후	퇴소 이후 취업, 진학, 창업 등의 실태	시설과 의도적으로 멀리하려는 아이들
		멀기만한 원가정으로 복귀
		주로 단순 생산직에 취업
		젊은이 취향으로 취업
		기피하는 도립대학
		장애있는 경우 시설 전원
	퇴소 후 겪는 어려움	세상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어려움
		아직 덜 된 사회화
	퇴소 이후 주거와 특성	불안정한 주거
		많은 지원 그러나 부실한 관리
		원가정과 시설 보다는 자신의 삶 추구
	퇴소 아동과의 교류	연락을 꺼리는 퇴소 아동
		본인이 필요시 방문
		서운한 마음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물질적 지원은 어느 정도 충족
		장애아동은 장애인 시설로
		선진지 견학의 부활
		물질적 지원보다 다양한 경험으로 지원

2.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인터뷰 결과

-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에 대한 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5〉 입소아동 인터뷰 분석 결과

구분	범주	분석 결과
시설 입소 후 생활 만족도	시설 거주 시 어려운 점	단체 생활의 불편함
		후원금의 부족
		사회적 낙인
		좁은 실내 환경
	학교생활의 어려운 점이나 만족도	낮은 학력
		무난한 친구 관계
	경제활동의 어려운 점	부족한 용돈
		저축하는 생활
	친구관계	원만한 교우 관계
		시설의 규정으로 친구 사귀는데 아쉬움
자립 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자립이란	스스로 일어서서 생활하는 것
		두렵고 어려운 것
		사회인이 되는 필요한 과정
	시설에 거주하면서 참여한 자립 준비 프로그램과 만족도	직접 체험해서 만족
		자립 능력 향상
		문화체험비 상승 요구
	고등학교에서 취업 수강한 취업 교육 만족도	만족한 취업 프로그램과 장래 희망
		취업보다는 대학에 있는 꿈
	자립 준비와 관련하여 외부자원 연계 및 만족도	외부 자원에 감사
	자립생활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	금전 교육
		취업 교육
		주택 지원

3.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인터뷰 결과

-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6〉 퇴소아동 인터뷰 분석 결과

구분	범주	분석 결과
퇴소 이후 생활 실태	주거 형태의 만족과 어려운 점	LH 전세 주택 지원 제도의 만족
		부담스런 월세
		퇴소 후 시급히 요구되는 정착 지원금
	취업 혹은 대학 진학 만족과 어려운 점	대체로 만족한 퇴소 후 생활
		인간관계의 어려움
		회사 적응의 어려움
	현재 소득 수준 및 국가의 지원 여부와 내용	아르바이트 수준의 급여
		국가의 지원은 전무
		과거 다양한 단기 노동
	퇴소 전 시설과 그리고 가족과의 연락 및 교류	시설과 지속적인 교류
		가족과는 전화 정도의 교류
	친구 및 동료와의 관계	소수의 친구
		무난한 친구 관계
현재 자립 상태	퇴소 이후 어려운 점	혼자 사는 외로움
		경제적 어려움
	자립이란	스스로 사는 것
		책임감을 갖는 것
		힘들고 두려운 것
		금전 관리
	진학, 취업 후 어려운 점	사회생활
		혼자 사는 것
		경제적 어려움
		정보망 이용
	취업, 창업, 진학 등에 자발적인 노력의 정도	인맥 활용
		지인의 도움 요청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대처	예방적 활동으로 어려움 대처
		예방법론
	퇴소 전 자립 지원 프로그램의 도움 정도	자립체험관의 도움
		늦게 깨달은 자립체험관의 효과
	현재 취득중인 자격증이나 준비 중인 자격증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운전면허증
		요리 분야 자격증
	자립에 필요한 것	철저한 준비
		주거 준비
		정보 획득
		신속한 지원

04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 정책제안

1. 퇴소아동 자립지원 방안

- 연구대상자별 심층면접 분석결과를 유형화한 자립지원방안은 다음과 같음.
 - 아동복지시설퇴소아동의 자립지원방안은 사회적 지원 활성화, 경제적 지원 활성화, 그리고 자립프로그램 활성화로 유형화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첫째, 사회적 지원 활성화를 위해 지지체계 강화, 지역 및 시설에 특화된 멘토 연계, 상황별 대응 매뉴얼 작성 및 배포
 - 둘째, 경제적 지원 방안으로 재정관리 교육 강화, 금융후견인 제도 도입, 빈곤이론에 근거한 취업지원, 정착지원금 제공 등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신속처리)
 - 셋째, 자립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으로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자립체험 프로그램의 다양화, 지역사회에서 봉사과 직장체험을 가미한 프로그램 강화, 임상심리사 활용 다양화,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참여프로그램 개발, 퇴소아동 재교육 및 재수강,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의 활용
- 본 연구에서 제시한 퇴소아동자립지원방안과 함께 기존의 아동자립지원프로그램(퇴소전, 퇴소이후)을 정리하면 다음 <표 7>과 같음. 현재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은 3가지로 퇴소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LH전세 주택지원 제도, 그리고 아동발달지원계좌를 통한 경제적 지원임

〈표 7〉 현행 퇴소아동 자립지원과 신규 지원 방안

시설아동자립지원 프로그램(현재)	퇴소아동자립지원 프로그램(현재)	퇴소아동자립지원방안(신규)	
1. 사회적응훈련비 지원 - 지원내용 : 아동의 경제관념 제고를 위해 용돈개념으로 사회적응훈련비 지원 - 지원방법 : 1인당 월 지원 단가 : 초등학생 1만원, 중학생 2만원, 고등학생 3만원, 대학생 5만원	1. 퇴소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 내용 : 퇴소, 종결아동의 생활품 구입 및 주거마련 등 자립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 - 지원방법 : 1인당 5백만원(1회) - 만18세 이상 연령도래로 퇴소하는 아동에게 아동개인계좌에 입금	1. 사회적 지원 활성화	- 지지체계 강화
2. 자립지원프로그램지원 - 지원내용 : 자격증 취득 및 취업박람회 참가 등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 - 지원방법 : 1인당 연간 15만원 이내	2. LH전세 주택지원 제도 - 내용 : 시설퇴소한 자로서 만23세 이하인자로 20세까지는 이자(연 1~2%) 부담. 지원한도는 국민주택규모 85㎡이하 주택이며 1인 단독세대는 60㎡이하임. 지원금액은 수도권 8천만원, 광역시 6천만원, 기타지역 5천만원 - 지원절차 : 퇴소자가 시군구에 전세주택지원신청을 하면 시군구청장이 자격확인 등을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체결을 하고 신청자에게 입주 통보		- 지역 및 시설에 특화된 멘토 연계
3. 퇴소예정아동 운전면허취득비 지원 - 지원내용 : 운전면허취득시 필요한 비용지원 - 지원방법 : 1인당 연간 100만원 이내			- 상황별 대응 매뉴얼 작성 및 배포
4.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 지원내용 : 자립지원프로그램 운영, 취업정보제공등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운영비 지원 - 지원방법 : 인건비(자립요원) 12명과 운영비지원		2. 경제적 지원 활성화	- 재정관리 교육 강화
5. 아동자립증진지원 - 지원내용 : 자립지원 DB구축운영, 금융역량강화교육, 자립역량강화사업, 자립체험관 운영, 심리·정서 지원사업, 꿈나무축구 대회참가 훈련지원 등 - 지원방법 : 자립지원전담기관 2억 지원(도비)			- 금융후견인 제도 도입
6. 아동발달지원계좌 - 지원내용 : 아동의 자립지원(경제적 지원) - 지원방법 : 아동이 적립시 국가(지자체)가 월 4만원 내 1:1매칭 지원(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			- 빈곤이론에 근거한 취업지원
7.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 심리정서지원사업, 자립지원DB 운영, 자립체험관 운영, 아동 및 종사자의 금융역량교육, 자립역량강화교육		3. 자립 프로그램 활성화	- 정착지원금 제공 등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신속처리)
			-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자립체험 프로그램의 다양화
			- 지역 사회에서 봉사와 직장체험을 가미한 프로그램 강화
		- 임상심리사 활용 다양화	
		-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프로그램 개발	
		- 퇴소아동 재교육 및 재수강	
		-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의 활용	

2. 자립지원 프로그램

1) 사회적 지원 방안

- 지지체계 강화

- 퇴소아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 요인은 기존 선행 연구에서도 다양하게 언급하고 있음. 특히, 퇴소이후 자립의 두려움과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호소와 함께 사회 속에 던져진 느낌, 외로움, 두려움을 더 큰 자립의 어려움을 끄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원가족과의 교류 활성화 방안으로 후원가능한 원가족 찾기 및 연계, 그리고 교류를 강화해야 함.
- 지지와 지원이 가능한 가족이 부족하기는 하나 원가족이 가지는 혈연관계의 중요성은 시설퇴소 아동에게 큰 의미가 될 수 있음

- 지역 및 시설에 특화된 멘토 연계

- 중앙정부 차원의 자립지원단 사업과 지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관심을 기울이는 아동들은 저조함.
- 따라서, 현실감 있게 자신도 퇴소 후에 자립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부여해 줄 수 있는 롤모델로서 같은 시설 출신 선배나 지역 출신 선배를 멘토로 연결하여 교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상황별 대응 매뉴얼을 작성 및 배포

-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각종 복지정책에 대한 홍보자료와 알리미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음. 이는 복지 서비스로 제공되는 내용과 이용절차 등을 서비스 대상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임
- 퇴소아동이 부딪칠 수 있는 상황별로 대응 매뉴얼을 쉬운 용어와 만화로 만들어 퇴소 아동에게 배포하고, 활용 방법을 소개하여 효과적인 자립생활 지원

2) 경제적 지원 방안

- 재정관리 교육 강화

- 정착금, 후원금 등이 지원된 퇴소아동 중 상당수가 효율적으로 금전을 관리하지 못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음.
- 퇴소아동에게 경제관념 교육 및 훈련 제공

- 금융 후견인 제도 도입

- 금전 관리에 대하여 일정 금액 이상(약 50만원 수준) 지출할 경우 조언이나 자문을 할 수 있는 후견인과 의논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지역 내 금융 자문인을 퇴소 전에 연결하여 정보와 정서적 교감을 도모하고, 이후 50만 원 이상 지출 시 사전에 연락하여 조언을 듣도록 함.

- 빈곤 이론에 근거해서 취업 지원 강화

- 빈곤이론에 근거(선발이론, 인적자본이론, 이중노동시장 등)에 빈곤아동 지원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빈곤문화이론에 근거하여 조기취학프로그램(헤드스타트, 드림스타트 등), 선발이론이나 인적자본이론, 이중노동시장이론에 근거한 무상교육, 고등교육 지원프로그램, 저소득 대학생 우선선발 제도 등이 있음.
- 퇴소아동에 대한 지자체 공기업 우선채용 강화
- 기존의 저소득층 우선지원에 더해 시설퇴소 아동에 대하여 채용 비율을 조례 등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 정착 지원금 제공 등 행정 절차를 간소화(신속처리)

- 정착지원금의 지원을 퇴소 전 지급하여 퇴소 즉시 주거공간을 마련하는데 사용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 및 신속처리 강화
- 퇴소 후에 행정처리가 되어 금전 지급이 이루어져 자립에 어려움 발생

3) 자립 지원 프로그램 강화 방안

-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자립지원 프로그램 적극성, 자발성 강화를 위해 참여 포인트를 관리하고 인센티브로 후원금 차등지급 가능하도록 함.
- 시설 아동의 특성상 무기력과 무계획성이 특성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에게는 현금 인센티브, 정서적 인센티브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아동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해야 함.

● 자립 체험 프로그램의 다양화

- 현재 퇴소한 시설 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해 자립 생활 체험은 천안과 금산에서 원룸을 임대하여 체험하게 하고 있음.
- 이것도 좋은 프로그램이지만 이러한 체험은 본인이 혼자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반복할 수 있음. 따라서 먼저 퇴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선배 집에서 5박 6일 정도 생활할 수 있도록 함.
- 선배 집에서 생활하게 되면 선배로부터 자립하기 전 준비해야 할 것, 자립 시 어려운 점과 극복 과정, 자립에 도움이 되었던 것 등을 배울 수 있음.

● 지역 사회에서 봉사과 직장 체험을 가미한 프로그램 강화

- 시설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도 아동들은 수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의 프로그램에도 지속성을 보이지 않음.
- 지역의 기업에 어렵게 부탁하여 취업을 성공해 놔도 얼마 못가 직장을 그만 두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시설 아동들도 학교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함. 이 프로그램을 단순히 학교 내 봉사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미장원, 식당, 카센터, 세탁소 등 다양한 업종(소)과 업무 협약을 하여 이러한 장소에서 직업을 체험하도록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 필요함.

● 임상심리사 채용 비용 합리적 사용

- 타시도 보다 앞서서 충남에서는 모든 아동 거주시설에 임상심리사를 배치하여 아동의 심리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 그러나 13개의 시설 중 3개의 시설은 아동심리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음.
- 임상심리사가 없는 시설의 아동들은 도시에 있는 아동심리치료센터를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임상심리사 채용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치료에 소요되는 인건비로 전용 가능하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며 치료비, 교통비, 식대 등의 지원이 필요함.

●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프로그램 개발

- 시설장들의 인터뷰 분석 결과 2016년까지 시설 아동과 시설 종사자들의 해외 선진지 견학이 있었는데, 이후 폐지됨.

-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의 단순참가보다는 시설 아동들이 견학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제안하는 형식으로 부활할 필요 있음.
- 아동들이 인터넷, 전문가, 선배, 도서 등의 도움을 받아 스케줄을 잡고, 견학지를 접촉하고, 여행사를 선택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해 보도록 하여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이고 자발적인 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시행

● 퇴소 아동의 재교육 및 재수강 활성화

- 퇴소 아동들은 시설에 있을 때는 시설에서 하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매우 소극적이고 그 의미를 축소해서 생각함.
- 퇴소 이후에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실제로 생활하다 보니, 시설에서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달은 것임.
- 따라서 퇴소한 아동이 시설의 프로그램에 재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의 활용

- 시설에 있을 때는 시설의 지원으로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였지만, 퇴소 후에는 자격증을 취득할 기회를 만들기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지역에 있는 평생 교육기관, 대학의 평생 교육기관을 활용하여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임

3. 정책제언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대체로 부모로부터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한 아동임. 즉, 아동학대나 가정문제 그리고 베이비 박스를 통해 입소한 경우가 대부분임
- 결국 아동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 또는 가족 그리고 사회의 문제임
- 시설이 보호아동의 종착지가 아니며 건강한 아동기를 보낼 수 있도록 사회적 자원과 관심이 더욱 확대되어야 함

- 아동기의 부적절한 환경은 이후 발달단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비롯하여 복지시설 내 아동은 학업중단, 가출 등을 경험하면서 심리적, 경제적 문제를 갖게 되며, 이러한 결핍이 아동의 시설퇴소 이후 자립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
 - 따라서 아동의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이 아동발달단계에 따라 맞춤형으로 정교하고 실효성 있게 시행되어야 할 것임

- 시설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은 아동발달단계에 맞는 진로지도와 퇴소 후 사례관리 및 자조집단 형성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지원을 위한 충청남도 차원의 퇴소아동자립지원조례 제정이 필요함

이 재 완 교수
 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041-850-8461, jaewan@kongju.ac.kr

※ 본 글은 충남연구원 2017년 전략연구과제 “충남지역 시설퇴소 아동의 자립지원방안 연구”를 요약, 재구성한 것임

- 강현아·신혜령·박은미(2009). 시설 퇴소청소년의 성인전환 단계에 따른 자립 및 사회 적응 현황. 한국아동복지학, 제30권
- 국민권익위원회(2016),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및 자립지원 개선방안, 국민권익위원회 2016.1.25. 의결(의안번호 제2016-136호)
- 김연명 외(2007), 아동발달계좌(CDA)제도 및 사업 확대 방안, 보건복지부·중앙대학교
- 노충래(2001), 한국 및 미국의 요보호아동의 자립을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 분석, 한국아동복지학회, 제14회 학술대회
- 보건복지부, 아동자립지원사업단(2011), 시설퇴소아동 실태조사 및 분석
- 보건복지부(2018), 2018년 아동복지사업 지원계획
- 보건복지부(2016), 아동복지시설 입퇴소 현황 내부자료
- 이용환(2003),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의 취업실태에 관한 연구-충청남도 15개 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15), 2003.6, pp.115-136
- 충청남도(2018), 아동복지사업 관련 내부자료
- 충남아동복지협회(2017), 아동복지사업 관련 내부자료
- 충남아동복지협회(2018), 아동복지사업 관련 내부자료
- 황정하·박수지(2017),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의 자립생활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24(9), 2017. 9, pp.119-143